

# 결 정

2018 - 3034 신문윤리강령 위반  
일간스포츠 발행인 홍성완

# 주 문

일간스포츠(isplus.joins.com) 2017년 12월 13일자(캡처시각) 「포르노에 등장한 ‘원더우먼’ 배우 깐 가돗?...‘충격’」이라는 제목에 대하여 ‘주의’ 조치한다.

# 이 유

1. 일간스포츠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.



<캡처시각 17. 12. 13. 15:36>

『포르노에 등장한 깐 가돗?...'인공지능'의 역습

[일간스포츠] 입력 2017.12.13. 12:59

영화 '원더우먼', '저스티스 리그' 등에 주인공으로 출연해 국내에서도 잘 알려

진 배우 켈 가돗의 포르노 영상이 유포됐다. 가돗이 그의 의붓형제와 성관계를 갖는다는 내용이다. 그러나 이 영상은 가짜다. 놀라운 점은 '가짜 포르노' 제작에 인공지능 기술이 활용됐다는 점이다.

11일(현지시간) 기술 전문 매체 마더보드에 따르면 가돗의 포르노 영상은 미국 최대 온라인 커뮤니티인 '레딧(Reddit)'의 한 사용자에 의해 만들어졌다. 한 개인이 특별한 장비나 도구 없이 이미 공개돼 있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으로 합성 포르노물을 제작했다는 의미다. 해당 사용자는 가돗의 얼굴을 합성한 포르노 영상 외에도 스칼렛 요한슨, 테일러 스위프트 등 유명인의 얼굴을 이용한 음란물을 만들었다.



켈 가돗의 얼굴이 합성된 가짜 포르노 영상. [마더보드 홈페이지 캡처]

(하략)

온라인 일간스포츠』

<[http://isplus.live.joins.com/news/article/article.asp?total\\_id=22200635](http://isplus.live.joins.com/news/article/article.asp?total_id=22200635)>

2.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.

위 기사는 국내에서도 잘 알려진 배우 켈 가돗이 의붓형제와 성관계를 갖는다는 포르노 영상이 유포됐는데, 이 영상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합성한 가짜라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. 원 제목도 「포르노에 등장한 켈 가돗?...‘인공지능’의 역

습」이다.

그런데 네이버 뉴스스탠드 제목은 「포르노에 등장한 ‘윈더우먼’ 배우 겐 가돗?... ‘충격」이다. 기사는 물론, 원 제목에서도 가짜임을 밝혔는데, 네이버 뉴스스탠드 제목은 이러한 사실을 밝히지 않고 왜곡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셈이 됐다.

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 「편집지침」 ①(표제의 원칙)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2018년 1월 10일

한국신문윤리위원회

위원장	김 용 담	김용담
위원	정 승 호	정승호
	장 명 국	장명국
	이 동 현	이동현
	장 인 철	장인철
	강 희	강희
	김 영 모	김영모
	박 현 갑	박현갑
	박 미 경	박미경

○ 적용 조항

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 「편집지침」 ①(표제의 원칙) 신문의 표제는 기사의 요약적 내용이나 핵심적 내용을 대표해야 하며 기사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해서는 안된다.